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8.15~16)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환구시보(环球时报)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하여 미국 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음을 보도¹⁾
- 교도통신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의 폼페이오가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음을 보도
-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폼페이오의 주최 하에 이번 주 내에 광에서 비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.
- 추동지가(驱动之家)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중 차장은 메모리(반도체) 수출을 무기 삼아 일본을 제재할 수 있음을 밝혔으나, 한국 정부는 메모리를 제재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음을 인용 보도²⁾
-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중 제2차장은 DRAM 메모리 수출을 무기 삼아 일본을 제재할 수 있으며, 만약 한국의 메모리 공급이 2달 중단된다면 전 세계 2.3억 스마트폰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언급
- * 한국이 우위를 선점한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이며, 메모리 반도체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72.4%임.
- 그러나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해명하며 한국 정부가 메모리를 對日 제재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힘.
- 한국의 對日 메모리 수출 비중은 0.52%에 불과하며(2018년 기준) 메모리 소비의 주요 영역은 PC, 스마트폰,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로 이 분야의 일본 기업은 미미한 수준

1) 「日媒：在强征韩国劳工问题上，蓬佩奥表示支持日本」, 『环球时报』(2019. 8. 15)

2) 「对日出口仅占0.5% 韩国否认用内存制裁日本」, 『驱动之家』(2019. 8. 15)

- 환구망(环球网)은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한국의 對日 대응조치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이번 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며 한일 간 신뢰 회복이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³⁾
- o 길림대 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郭锐 교수는 일본이 자국의 핵심 경쟁우위 분야에서 한국과 무역분쟁을 진행 중이므로 한국의 對日 제재 조치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.
- * 이번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이 선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한국이 대응하고 있어 경제·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대응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
- *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. 향후 한일 간 상호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차기 정부가 신뢰를 새롭게 쌓아야 할 것임.
- o 상하이 대외경제 무역대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 詹德斌 교수는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것은 여론전을 일으켜 도덕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
- o 또한 그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는 일본 기업이 기타 국가에서 대체품을 찾을 경우, 일본 기업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충격이 더 크므로 경제적 의미보다는 일본 정부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
- *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의 조치나 제재에 비해 한국 국민들의 반일 태도가 더 견고하고 크게 확산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.

□ [업계 전망]

- 반도체 산업관찰(半导体产业观察)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① 한국 반도체 공장의 일시적인 작업 중단, ② 불화수소 대체재 모색의 어려움, ③ 한국 생산설비 업체의 막대한 손실 등 단기적 영향과 ① 일본의 대한국 빅 비즈니스(BIG Business) 기회 상실, ② 한국의 對日 DRAM, SSD 판매난 등

3) 「韩国在日本投降日高调办庆祝仪式, 反制贸易争端成效几何?」, 『环球网』(2019. 8. 16)

중장기적 영향을 초래할 것을 전망⁴⁾

-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품목 중 ‘불화수소’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, 향후 불화수소의 재고가 소진되면 DRAM, NAND 등 메모리 반도체, EL 패널 등 생산이 중단되고 전 세계의 전자설비, 통신 설비 제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- 한국 기업은 일본에 의존해온 원료나 소재, 설비에 대한 국산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미국 등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향후 일본 기업의 대한국 생산설비나 원료의 수출이 급감될 것으로 예상
- 한편 한국의 SSD 수출규모는 전 세계의 43.3% 차지, 그중 삼성전자가 33.4%를 차지하고 있음. 향후 한국 정부가 對日 수출규제 품목으로 고성능 SSD를 지정한다면 일본의 전자설비 기업은 곤경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

4) 「日韩决裂, 半导体谁最受伤?」, 『半导体行业观察』(2019. 8. 16)